

특별기고

경기북도(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②

지자체 규모 전국적 통일 위한 구역 개편 필요



김정완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I. 분도의 목표와 원칙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도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서 사전에 목표와 원칙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는 학자에 따라, 시간과 공간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C.Millsbaugh는 주민의 공동생활권, 효율적인 지방행정, 자주재원조달 가능성, J.W.Fessler는 지적학적인 여건, 행정능률, 지역경제, 주민통제, 영국 지방행정위원회는 지방행정의 효과성과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행정구역개편의 원칙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조창형, 2002: 229-232).

이와같이 다양한 구역개편의 원칙들 중에서 21세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인 여건을 반영한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와 관련된 원칙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주민 편의성과 지역공동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적절한 규모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정보와 개방화 등의 시대적 潮流에 의해 광역화가 일반적인 추세이다. 광역화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집적의 이익(economy of agglomeration)을 공간적으로 확대한 개념이지만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규모의 불경제와 집적으로 불이익이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주민의 편리한 관점에서 행정구역의 적절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 편의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주민편의의 통치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기초한 구역개편을 의미한다. 지역주민의 생활권은 현재의 경제사회적 활동영역으로 형성되지만 구성원의 관계는 역사성을 띠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동체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은 자연발생적이고 일상적인 공동체적인 영역을 반영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현실적인 생활권이라는 실체를 반영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따

라서 인위적인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현실적이고 협력적인 정주공간 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괴리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분도를 통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개편구역을 확정할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주민의 편의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 행정의 효율성
행정구역은 행정기관이 해당 구역을 관할함에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지나친 廣域과 狹域에 따른 미비와 낭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에 입각한 적정규모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지방정부의 역할,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현대의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일상적이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획정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주성은 행정의 효율성과

상충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지방자치 정착된 현대에는 주민의 관심정도가 지방행정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상호보완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개편은 지방선거구와 지방의원 수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적 조류에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독자적인 자치체에 의해서보다는 주변 지자체들의 경쟁과 협력에 의해 제고되는 측면이 많다. C.Tiebout에 의하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때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선호를 만족시키지 않는 지역을 떠나 적은 조세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vote by feet). 그 결과 지자체들은 작은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Tiebout, 1956). 이와 같은 지자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있어 비슷한 지자체가 다수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구역개편이 필요하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⑧

미국 생태마을 이타카(Ithaca)의 사례에 대한 사유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현재 미국에서는 일명 에코빌리지(Ecovillage)로 통하고 있는 생태마을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그 모범적인 사례로 이타카 에코빌리지를 꼽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우드랜드가 경관생태학의 조건에 바탕을 둔 최적의 생태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타카는 생태환경의 조건을 인간의 삶에 접목한 대표적인 에코빌리지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룬 가장 성공적인 생태마을로 평가되고 있는 이타카 에코빌리지 공동체는 1997년에 프로그(Frog) 마을을 처음 30가구 규모로 건설하였고, 그리고 2003년에는 '송(Song) 마을'을 추가로 완공하였다. 미국 뉴욕 주 이타카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생태마을은 미국 주택건설협회에서 수여하는 혁신주택상을 받았던가 하면, 1998년에 '세계주거지상' 최종 후보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주는 효과적인 대안역할을 하면서도, 문명에 찌든 현대 도시를 생태도시로 바꾸어가는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에코빌리지 거주자들은 자연과 함께 하는 농업지향적인 삶에 바탕을 두고서 퍼머컬처(Permaculture)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

퍼머컬처는 1978년 후주의 생태학자 빌 몰리슨(Bill Mollison)과 데이비드 홀그렌(David Holmgren)이 시작한 운동인데, 이는 영원한 농업(Permanent agriculture)과 영원한 문화(Permanent culture)를 거주지에서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생태학적 정신을 의미한다.

빌 몰리슨이 퍼머컬처를 "지속 가능한 인간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계획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었지만, 퍼머컬처 개념은 생태학적인 거주지의 설계에 생태적인 식량생산 시스템과 결부시킨 이 공동체의 기본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이상적인 생태마을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철학인 셈이다.

또한, 퍼머컬처는 인간 거주지와 기후, 식물, 동물, 토양, 그리고 물과의 공존적 조화를 추구하는 일종의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의 기본원리를 이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퍼머컬처는 생명체와 생명체를 서로 연결하는 유기적인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과 문명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타카 에코빌리지는 토지 이용과 유기농법, 공동체 생활, 친환경 건축,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생태학적 삶이 살아 숨쉬는 최고의 대안이 되고 있다.

에코빌리지는 코하우징(Cohousing, 일명 협동주거)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므로 에코빌리지의 정신에 공감하는 거주자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건축가와 설계사를 선정하여 다양한 디자인과 실내공간을 갖춘 주거단지를 계획하게 된다.

대지의 80% 이상이 자연 생태지역으로 설계되고, 거주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자연 원료를 이웃과 함께 사용하며, 재생 에너지의 사용과 자연재료의 이용을 생활화 하

고 있다. 빗물 재생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수자원의 관리도 실행하고, 태양전지로 불을 밝히고, 한 겨울에도 태양열을 받을 수 있도록 창문을 크게 만들어 동시에 열의 손실을 막는 특수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타카 생태마을의 최고의 가치는 생태적 삶의 지속성을 위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이웃과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도 불구하고 한 문화(Permanent culture)를 대대로 자녀를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한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천한다.

또한, 이들은 마을사람의 생활일에 모여 피터를 열고, 마을 연못에 동자를 뜬 오리 때문에 수영을 중단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주민회관에 모여 결정한다.

이들은 사랑과 신뢰감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에코빌리지의 거주자와 개발자로 구성된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랑과 신뢰의 정신을 서로 공유한다.

이타카 에코빌리지의 설계자는 리즈 워커이다. 그녀는 이 공동체를 처음 계획하여 실행하기 전에는 지역 단층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사회경험의 전부이고 경제력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

"나는 그 어떤 태양전지 기술이나 유기농 지식보다 우리가 이룩한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워커는 협동심과 사랑과 신뢰감이 충만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실천하고 있는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사람이 자연과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나갈 수 있다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지역에도 사랑과 신뢰를 통한 이타카 생태마을과 같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건설되길 기대한다.

교육에세이 87

개교기념일



이호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포천에서 역사가 가장 깊다. 교장으로 승임 받아 첫 취임사를 하려고 교문을 들어서는데 마치 외가에 온 것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해마다 다가오는 개교기념일, 개교기념일 때는 의례 학교장 재량휴업을 알리는 공문을 1~2주일 전에 우리교육청을 비롯해서 포천관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발송한다.

물론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하루를 가정에서 보낸다. 개교기념일은 쉬는 날이라는 무의미한 개념이 학생들에게 뿌리깊게 인식되어 있다. 이런 모습은 학교가 문명을 연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요즈음 시대에 개교기념일에 대한 개념도 시대에

결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정에서 생활을 맞이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날은 반드시 기억하고 음식을 새롭게 만들고 선물을 준비하고 평소엔 친하게 지낸 친구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지낸다. 개교기념일은 학교의 생일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생일도 개인의 생일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날로 지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본교처럼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일수록 더더욱 그 필요성은 더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2008학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개교기념식을 예산으로 10만원만 계상했다. 이 예산으로 쌀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전교생이 나눠 먹기 위해서였다.

본교 개교기념일은 9월1일인데 개교기념식을 8월30일 토요일에 실시하였다. 전교생과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학급별로 기념촬영도 하였다.

특히 자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빵과 음료수 및 닭튀김을 준비해와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었다. 또한 여름방학 과제물 전시회를 하면서 한 코너를 마련하여 학교사랑

에 대한 글짓기와 그리기를 실시하여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였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그 자긍심을 바탕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통하여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자랑스런 우리 학교'라는 제목으로 2학년 김도희 학생은 다음과 같이 글짓기를 하였다.

우리 학교는 98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다. 나는 우리학교가 생일이 아니어도 자랑스럽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는 화창살도 새롭게 탄생했고 학교 숲도 새롭게 탄생했다. 또 나는 학교를 정말로 자랑스럽다. 우리 학교는 처음에 평범한 학교이었지만 새롭게 탄생했다. 겨우 시골학교지만 우리 학교도 내가 크면 유명한 시골학교가 되었을 것 같다. 또 우리학교는 공사를 해서 학교가 아꼈을 거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으니까 우리 학교가 더 자랑스럽고 활발하고 또 우리 학교가 기본이 좋으니까 나도 날아갈 것처럼 기본이 좋다. 나도 학교처럼

활발하고 자랑스러운 김도희가 될 것이다. 또 학교가 어떤 것이든 건디 나간 나도 학교처럼 건디 까다. 또 학교가 무거운 것들을 땅에 많이 옮겨 줬으니까 나도 무거운 짐을 나도 참을 것이다. 나는 진짜로 영광초등학교가 자랑스럽습니다.

4학년 이은수 학생은 '우리학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창문을 보면 신채로의 나무들이/활짝 웃고 있다.

체육등산 시간/ 불두산이 펼쳐진 공원에 깨끗함을/불어 날네

점심시간/깨끗한 물이 우리 손을/씻어주네

점심 먹고 남은 시간/나비와 벌들이 나한테/힘을 불어 날네

학교가 끝난 시간/지친 나를/연못이 시원하게/만들어 준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아담하고 가정과 같이 포근하며 공부와 심터를 겸해 주어야 한다. 자칫 어른의 눈높이로 학교를 보게 되면 자칫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포천 한탄강 메기매운탕

OPEN





김포에 유명한 한탄강 매운탕을 포천에서 맛보실수 있습니다.

한냄비 28,000원에 4인이 드시기에 충분합니다.

떡볶이 매기매운탕 1인분 8,000원(혼자서도 드실수 있습니다)

수제비와 라면사리 무제한 공짜!!(참게 추가 가능)

대표 노 훈





단체예약환영 (031)541-5535 주차장완비 · 냉난방완비 미리 예약하시면 빨리 드실 수 있습니다.